

부자의 근심

QT는 Quiet Time의 약자로 매일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하며 삶에 적용함으로써, 삶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는 경건 훈련입니다.

01 찬양과 기도



<오늘의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기도하며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염려를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나아가십시오.

450 내 평생 소원 이것뿐 (통일 376)

보통으로



1.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 의 일 하 다 가
 2. 꿈 같 이 헛 된 이 세 상 일 주 의 할 것 무 다 나
 3. 불 같 은 시 험 된 이 세 상 일 나 취 지 마 어 시 다
 4. 금 보 다 귀 한 믿 음 은 참 주 내 배 되 도 다
 5. 살 같 이 빠 른 광 음 을 주 위 해 아 끼 세

이 세 상 이 별 하 는 날 주 앞 에 가 리 라
 이 수 고 암 만 하 여 도 주 헛 것 뿐 일 세
 구 주 의 권 능 크 시 니 기 고 남 겠 세
 이 진 리 믿 는 사 람 들 다 복 을 받 겠 네
 온 몸 과 맘 을 바 치 고 썬 서 일 하 세 아 멘



본문 말씀을 2~3회 읽은 뒤 문맥을 고려해 본문을 읽으면서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말씀 또는 의문이 생기는 말씀에 밑줄 긋고, 그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17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18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19네가 계명을 아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 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20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21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23예수께서 둘러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24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애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25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26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27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28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29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30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 배나 받되 박해를 견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31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03 묵상하기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 그 말씀을 주셨는지, 내가 무엇을 깨닫기 원하시는지 질문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내용을 여백에 기록하십시오.

04 적용하기



묵상을 통해 주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은 나의 잘못에 대한 지적이나 내게 주시는 격려,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인도 등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일

05 기도



묵상을 통해 주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은 나의 잘못에 대한 지적이나 내게 주시는 격려,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인도 등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십시오..

나의 기도

부자의 근심

본문 : 마가복음(Mark) 10: 17 - 10:31 찬송가 450장

유대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던 어린아이들에 이어, 가장 존중받는 부자가 나옵니다. 이를 통해 누가 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인지를 교훈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23-27절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십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부'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 여겼기 때문에 부자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십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이의 '부'는 하나님의 선물이 맞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부'는 불의와 탐욕의 열매일 수 있습니다. 깨끗하다 하더라도 가난한 이웃을 외면하는 '부'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눅 19:1-10).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7-22절 땅의 재물을 가난한 자들과 나눌 때, 하늘의 보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자는 예수님을 찾아올 만큼 영생에 관심이 있었고, 어려서부터 계명들을 온전히 지켜왔습니다. 만약 계명 준수가 영생의 조건이라면 가난한 이들보다 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재물'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재물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데 최대 걸림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 소유가 없는 어린아이나 가난한 자들이 부자보다 훨씬 하나님 나라에 가깝습니다. 소유를 나눔 없이 적당한 선에서 헌신하는 것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집착하고 있는 소유는 무엇입니까?

28-30절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희생한 이들은 현세와 내세에 보상을 받습니다. 현세의 보상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이미 버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들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결코 헛된 수고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31절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천국의 역설은 부와 가난에도 적용됩니다. 이 땅에서 부를 누리고 사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잃고, 가난한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얻을 것입니다. 땅에 재물을 쌓고 높아지고 먼저 되려고 하지 말고, 비록 이 땅에서는 나중 된 자로 살더라도 하늘에 우리 보화를 쌓는 삶을 살아갑시다.

기도

공동체-제 소유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섬기며, 이 땅의 가난한 자들을 돌보게 하소서.
열방-최근 인도네시아 정부가 부당하고 급작스럽게 교회를 폐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헌법이 보장한 예배의 자유를 실제로 보장하도록

본문 : 마가복음 10:17-31

주제 : 영생은 하나님 나라만을 절대화하고 나머지는 모두 상대화한 자에게만 열린다.

핵심 질문 : 복과 영생을 얻기 위한 제자의 모습은 무엇인가?

1. 도입

평생의 소원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 안에 영생, 구원. 하나님 나라. 평안이 다 있다. 예수님 을 얻으면 다 얻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 대신에 재물을 택한 부자는 영생의 값어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인가?

2. 본문

부자와의 만남- 예수님은 영생을 갈망하여 찾아온 이가 소유의 노에 된 삶에서 놓이기를 바라셨다. 그 자유가 영생의 삶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재물을 사랑하는 편을 선택한다.
움켜쥔 것을 놓아 이 보좌 예수님은 붙잡을 수 있다. 영생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기억하자.

제자들을 향한 교훈- 재물이 많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 갈 수 없다고 하신다. 부를 의로운 삶의 대가로 여긴 상식을 무너뜨리시는 말씀이다. 여기 많은 재물은 욕심과 소유욕, 놀의와 편법, 냉정함과 이기심을 의미 한다. 가난이 자동적으로 영생의 조건이 아닌 이유가 이것이다.
가난한 부자도 있다.

보상의 약속- 많은 것을 희생한 제사들에게 현세에서 얻을 복과 내세의 영생을 약속하신다.
치른 대가에 비할 수 없는 풍성한 약속이다. 하지만 그 자기포기와 복음을 위한 삶에는 고난이 따른다. 우리의 '버림'과 '십자가'는 그가 복된 자이 자 약속의 상속자임을 보여주는 표지인 것이다.

3. 결론

주님을 알고 헌신하며 따르는 것은 감사의 조건이지만, 지분을 주장한 조건은 아니다. 수고와 희생을 계산하여 지배적인 태도를 보이 거나 목소리를 높인다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는 비극을 맞게 될 것이다.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며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마치자.